



조선해방첫돌기념
임시증간호

조선간소학생모범작문집

兒協一萬圓懸賞當選作文

1946年版

조선간소학생모범작문집

조선아동문화협회·발행

36.5-4
~~3578-2~~

No. 00874

모법작문집

No. 00874

LIBRARY  MARK

標語	注意
讀書は	ほんをひらく
向上	ときはつばを
の基礎	ゆびさきにつ
	けないやう

朝鮮總督府圖書館

아 36.5-4(1)

36.5
3578
12

소 학 생



집



呈

朝鮮兒童文化協會
贈本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年度

兒協一萬圓懸賞小學生作文當選者

1等 (賞金 3,000圓)

그리웠던 고국 (1)

서울梨泰院公立國民學校

6年 이 문 용

指導 盧載敏 先生

2等 賞金 各1,000圓)

1. 범철이의 토끼 (4)

忠南牙山高道公立國民學校

5年 김 종 택

指導 김동근 先生

2. 무 궁 화 (8)

忠南扶餘九龍公立國民學校

6年 嚴 在 男

指導 任忠淳 先生

3. 우리 집 꽃밭 (11)

서울德壽公立國民學校

3年 박 현 옥

指導 方基煥 先生

3等 (賞金 各500圓)

1. 새 새 끼 (14)

忠南公州女師附屬小學校

5年 李 鍾 姬

指導 劉五成 先生

2. 우리 집 (17)

서울敦岩和光國民學校

4年 金 珠 熙

指導 金南英 先生

3. 우리 집 살구나무 (20)

서울德壽公立國民學校

6年 진 현 숙

指導 方基煥 先生

4等 (賞金 各300圓)

1. 정 거 장 (24)

慶北榮州東部公立國民學校

5年 吳 順 根

指導 金碩鎮 先生

2. 학 자 거 지 (25)

서울三清公立國民學校

6年 吳 俊 明

指導 金洙哲 先生

3. 가난과 싸우며 (28)

忠北清原琅城公立國民學校

5年 鄭 圭 哲

指導 申教錫 先生

4. 쌀 (32)

慶南熊川公立國民學校

6年 이 종 회

指導 張東五 先生

5. 점심 안가지고 온

동무 (34)

全南順天南公立國民學校

5年 金 成 心

指導 金來明 先生

6. 우리 집 (36)

慶北高靈安林公立國民學校

1年 徐 英 志

指導 黃漢性 先生

7. 비행학교에 입학한

우리 형 (38)

서울漢洞公立國民學校

3年 최 희 동

指導 朴貞緒 先生

8. 장애물 경주 (41)

京城師範附屬小學校

5年 李 輝 昭

作文審査合評記 (45)

審 查 員 氏 名 (7L 次 則)

梨花女子專門學校 文科科長・詩人	鄭 芝 溶 先 生
軍政廳文教部 編撰課長・時評作家	李 秉 岐 先 生
京城大學 朝鮮文學教授・語 學/家	李 熙 昇 先 生
朝鮮文學家同盟 副委員長・小說家	李 泰 俊 先 生
京城大學豫科 英文學教授	皮 千 得 先 生
(本協會側) 尹 石 重	趙 豐 衍

그리웠던 고국

서울 梨泰院公立國民學校

6年 이 문 용

나는 세살 때 봉천에 들어갔다가 여섯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천진으로 가서, 일곱살 되는 봄에 일본인 국민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우리 반에는 조선 동무가 둘뿐이었다.

6년 동안 “조센징” “조센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분하여 울었다. 그러나 나는 공부나 운동은 지지 않고, 뛰기는 늘 일등을 하고, 씨름을 할 때는 일본애들을 막 넘어뜨렸다. 작년 8월 15일 일본이 손을 들자 “나도 독립 국가의 소년이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기뻐서 울었다. 기뻐한지도 몇날 안되어 나는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 역사와 지리를 배웠다. 하루바빠 조선에 돌아가서 우리 나라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

지난 5월 18일 내가 오래 살던 집을 떠나게 되어, 나는 내 방을 깨끗이 소제를 하고 책상도 정돈하고, 붓으로 벽에 조선 독립 만세라고 써서 붙이고, 내가 사탕

하던 검둥이를 책상 위에 놓고 떠나려고하니,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가봐 돌아서서 씻고 있노라니, 아버지께서 “문용아 울지마라. 너는 조선의 소년이다.” 라고 하시는 아버지 음성도 떨리었다. 화물 자동차로 남하창이라는 곳에 집결되었는데, 샷으로 만든 방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였다. 이 보다는 더 심한 도살장에도 조선 사람이 많이 집결되어, 먹을 것이 없어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한다. 이틀을 지나 20일 새벽에 짐 검사를 마치고 화물차로 탄꾸에 와서 그날 오후에 배를 탔다. 얼마 후 배가 떠나게 될 때, 나는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며 대륙과 작별했다. 나는 배는 물론 바다도 처음이었다. 배는 섬도 없는 바다를 남으로 남으로 달아났다 조선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 큰 배를 많이 만들어 외국과 연락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은 반드시 갑판에 올라가서 해 떠오르는 것과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았다. 나는 섬도 안보이는 곳을 날아가는 새를 볼 때에는 저 새가 날아가다가 날개가 아파서 떨어지지 않을가 하고 근심도 하며, 또 나도 비행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 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하였다.

25일 배는 부산 항구에 도착하였다. 부산은 산이 둘러 있는데, 그 산에는 초가가 많이 있었다. 27일 오후에 야 배는 부두에 대게 되어 상륙하게 되었는데 미국 군인 세 사람이 배에 올라와 질문을 하고, 상륙을 하니 그 사람들이 역시 몸 검사와, 짐 검사를 하였다. 나는 미국에 온것 같았다.

그날 밤은 부산 어느 창고에서 밤을 새고 그 이튿날 우리는 또 화물차를 타고 경성역에 도착하였는데. 나는 아마 조선 사람들이 우리들을 맞이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섰더니, 아무도 맞아 주지 않았다. 호음을 나와보니 참 나는 처음으로 많은 조선 사람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놀랐다. 노인이 지게를 지고 서있는것과, 학교에나 다닐 나와 같은 동무들이 담배를 팔고 있었다. 조금 더 나왔더니 길스가에 떡장사가 많이 있는것을 보고, 자동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미국군인이 흥을 불가와 나는 부끄러웠다. 계다를 신은 사람이 있어 일본사람인가 했더니, 그 사람은 조선사람이었다. 나는 빨리 어른이 되면 우리 나라에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이태원 공립 국민학교에

있던 지팡이를 집어들고 일어서려합니다. 범철이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2학년 짝에 운동장에서 떨어져서, 그 길로 한쪽 다리가 병신이 되어서, 학교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지팡이에 매어달려서 절뚝 절뚝 따라다닙니다.

그 때는 작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앞 행길에 미국 군대를 태운 자동차가 지나가기 시작 하였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생전 처음 보는 미국 사람이 하도 신기하여서 날마다 행길사이에 나가서 자동차가 지나가는것을 구경하였습니다. 하루는 삼거리 주막집 앞에 모여섰던 우리들이 손을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니까, 자동차가 정거하더니만, 미국 병정들이 웃으면서 과자를 뿌려주었습니다. 과자를 줏으려고 범철이도 지팡이를 짚고 뛰어 가니까, 그것을 본 미국 병정들이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더니 범철이를 에워싸고 그의 아픈 다리를 가리켜가면서, 무어라고 미국 말로 물어보나, 누구하나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범철이는 얼굴을 빨갛게하고 머뭇머뭇 하고만 섰습니다. 병정들은 자기네끼리 한참 공논을 해가면서 범철이 다리를

만져보기도 하다 또 그를 걸리워보기도 하다 허더니,
나중에는 웃으면서 범철이를 번쩍 들어서 자동차에다
올려놓고 다음에는 거기 있는 아이들을 죄다 차례 차
례로 래웠습니다. 자동차 속에서 또 과자를 나눠 주었
는데, 범철이를 그중 많이 주었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가다가 쉼고서 무너진 다리를 병정들이 고쳤습니다.
다리를 고치는것을 구경하고 우리들이 돌아오려고 할적
에 병정들 네사람이 지갑에서 10원짜리를 한장씩 고내
더니, 한 사람이 모아가지고 와서 범철이에게 줍니다.
범철이는 “싫어유, 싫어유.”하고 손을 설레설레 내저었
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미국 병정은 자꾸만 우겨서 기
어코 그 돈을 범철이 조끼 봉창에 넣어 주고서는, 어서
집으로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우리들이 범철이를 데
리고 이마침 오너라니까, 어떤 어른 하나가 미국 사람이
무엇을 주더냐고 범철이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 때
뒤에서 고함소리가 나기에 돌아다 본즉 아까 그 돈 준
병정이 뛰어옵니다. 뛰어오더니 범철이 곁에 서있는 어
른을 보고 눈을 부라리고 야단을 하면서, 행길에 돌맹이
를 집어 들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그 돈을 뺏
으면 돌맹이를 던지겠다는 몸짓입니다. “안 뺏어요.”하

고 그 어른이 가버리니까, 병정은 우리들더러 어서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우리들이 동구 밖 소로스길에 들어서면서 돌아다보니, 친절한 병정은 그 때까지 우리들 쪽을 바라보고 섰었습니다.

범철이는 그 돈으로 토끼 한 자웅을 사놓았습니다. 범철이 어머니가 고마운 미국 병정을 오래동안 잊지 않기 위하여 그 돈을 헛되게 써버리지 말라고 한것입니다. 범철이는 제 손으로 토끼 우리를 지어서 귀엽게 길렀습니다. 토끼는 그 후 새끼를 낳아서 토끼 식구는 차차로 많아졌습니다. 어느 때 범철이가 엉엉 울어대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그 몫쓸 놈의 쇠똥이네 개가 토끼 새끼를 세 마리나 물어 죽였다는것입니다. 범철이는 그 가엾은 토끼 새끼를 뒤산에다 물어주고 그 무덤에는 조그만 소나무까지 심어놓았는데, 그 장사 지낼 때에 우리들은 회장꾼으로 따라갔었습니다. 언젠가는 밤에 비바람이 호되게 불어서, 토방에 놓은 토끼집 안에까지 비가 뿌려져서 토끼들이 감기가 들었는데, 범철이가 지성껏 간호해서 고쳤습니다. 범철이가 다리를 앓느라고 오래동안 방 안에 누웠을적에 토끼집이 범철이 머리맡에 놓여 있는것을 나는 여러번 보았

습니다. 봄이 되어 범철이 병도 낫고, 풀썩도 자라나니, 범철이는 날이 좋으면 가끔 풀밭에 토끼들을 내다 놓고, 풀을 뜯기고 그것을 지키고있습니다. 범철이가 무릎 위에 토끼를 놓고 쓰다듬어 주면 토끼는 빨갛 눈을 감고 주둥이만 움질움질 합니다.

범철이네집 식구는 꼭 열입니다. 그런데 토끼는 여섯 마리입니다. 범철이는 토끼 식구도 어서 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밤낮 그러합니다. 어미 토끼는 지금 또 새끼를 배었습니다. 맨 첫번에 낳은 새끼 토끼도 오래잖아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러면 미국 병정이 준 돈으로 산 토끼는 손자를 보게 되는데, 그 때에는 범철이가 잔치를 한다는것입니다. 손님으로는 우리들을 청하겠지요. 무엇으로 어떻게 잔치를 할라나,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무궁화

忠南·扶餘 九龍公立國民學校

6年 嚴 在 男

애국가에서나 조선의 노래에서 무궁화 이 동산이라는 절을 부를 때, 나는 언제나 경찰서 철장에서 주먹밥

을 받으시던 고선생님의 창백한 그 얼굴이 지금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원에 있는 꽃을 가리키며 “이 꽃이 무슨 꽃이냐? 무어라고 선생님이 하더냐?” 묻던, 거만 안경 쓴 그 형사놈의 능글능글한 모양,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가 난다.

내가 3학년 때 첫여름 어느 날이었다. 언제나 커다란 목소리로 호령을 불러 아침체조를 가르쳐 주시던 고 선생님이 안오셨다. 선생님이 하숙하신 집 김군이 오기를 기다려 물으니, “어제 밤에 숙직하시는데, 긴 칼 찬 순사랑 형사가 와서 데리고 갔단다. 그때 아침 진지를 가지고 가보니, 선생님은 유치장에 계시겠지.” 하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김군의 말을 들을 때 얼굴이 화끈 하여지며 뜨거운 그 무엇이 가슴에 뭉클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이 유치장에 계시는가? 종일토록 공부도 아니되고 마음만 설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걸으시기를 좋아하시며, 때때로 이파 시간에는 뒤풀이에 올라가 우울하신 기분으로 우리들에게 단종대왕의 이야기와, 화원에 있는 무궁화는 우리 나라 꽃이라는 말씀을 하여주시던 선생님이시다. 일주일간 김군과 같이 점심 진지를 갖다드릴 때마다 유치장 최창사살을 불드시고

떨리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고맙다. 공부들 잘 하여라. 너희들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차 알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대답의 말을 찾지 못하고 어쩐지 슬프기만 하였다. 뒤에 선생님을 남기고 경찰서를 나올적에는 눈시울이 뜨끈하여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순사놈들의 칼 소리를 들을 때 잠시도 머무르기가 싫었다.

그간 경찰서에서는 선생님 거처하시던 하숙 방에서 여러가지 책과 무궁화에 대하여 글 쓴것을 가지고 갔다 한다. 일주일 후 어느 형무소로 선생님은 인사말씀 한마디 안 남기시고 가셨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데, 우리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삼천만 겨레는 날뛰었다. 그러나 고선생님은 어디서 기뻐하실가? 감옥에서 놈들에게 가진 고초를 다 받으시다 영원히 돌아가신 선생님…….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만족하실가? 조국을 사랑하시고 국화를 사랑하시며 용감하게 싸우시던 선생님……. 꿈직이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던 선생님의 귀한 목숨을 악독하게도 빼앗은 악마…놈들은 왜하여 쫓겨가고야 말았다.

선생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다. 우리들은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말하고 쓸수 있는 이 따의 배우는 어린
이다. 마음껏 배우자! 힘껏 배우자! 그리하여 앞날의
조선을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일꾼이 되자. 그것이 지
금은 안 계시고 지하에 고요히 잠드신 선생님에게 들도
없는 선물일것이다.

선생님의 여윈 얼굴이 눈앞에 어련다. 창 앞 가시울
타리에 섰는 무궁화는 썩썩히 벌어난다. 건너편 행길
엔 미국 차가 두 채 먼지를 피며 달아난다. 나는 고요
히 눈을 감고 생각하였다. 내일엔 그놈들이 파 없센 무
궁화를 학교 화원에 또 심어주십사고 선생님께 여쭙리
라.

우리 집 꽃밭

서울 德壽公立國民學校

3年 박 현 옥

우리 집 꽃밭에는 여섯가지 씨를 심었습니다.

꽃씨로는 봉선화, 나팔꽃, 해바라기, 파티, 백합씨도
호박씨도 심었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
각해서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종이에 싨 씨를 푸르시

너가 동생이 “아버지 이 꽃씨가 제일 예쁜 꽃이 피는
씨죠.”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그래 꽃도 예쁘고 너희
들 하고 친한 동무가 되는것만이란다” 하시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왜 동무가 되는지 가르쳐줄가.”
하시기에 이야기 좋아하는 저하고 동생은 “네, 네,” 하고
어머니 앞에 바짝 턱을 쳐들고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
다. 그 때 어머니가 “봉선화는 현옥이 동분데, 빨갭게
꽃이 피면 따서 손톱에 더리면 예쁘고, 나팔 꽃은 창집
이처럼 부지런해서 아침에 피는 꽃이고,” 하시니까, 저하
고 동생은 웃었습니다. “또 해바라기는 쪽 쪽 너희들
처럼 키가 잘 크고 해를 좋아하니까 해바라기란다.”
하시더니 해바라기 노래를 불러 주셨습니다 “백합은
희고 냄새가 좋아서 거짓말 안하는 좋은 사람 마음같
고, 파리는 주렁 주렁 열리거든 따서 내 불면 재미 있지.
호박은 열면 호박 찌게와 호박전을 붙여서 먹지.” 하셨
습니다. 저하고 동생도 팔을 걷고 들맹이를 골라 호박
밭과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호박씨를 한군데에 들
씩 네 군데에 심고, 첫번것은 아버지것, 그다음것은 어
머니것, 세째는 언니것, 네째것은 내 동생하고 내것입
니다.

앞에는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나하고 동생은 자고만 나면 밭에 가서 보았습니다. 어떤날 아침에 내 동생은 마당에서 “누나야, 누나야, 빨리 나와. 우리 호박 나무가 나왔다.” 하고, 자는 나를 막 흔들고 떠드는 바람에,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가 보니까, 우리 것이 맨 먼저 나왔습니다. 동생은 팔을 쳐들고 “우리가 일등이다. 만세 만세.”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무시던 아버지와, 밥을 지으시던 어머니도 건넌방의 언니도, 문을 열고 “어디” 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것, 아버지것, 언니것, 차례 차례 다 나왔습니다.

꽃씨로는 봉선화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요사이는 비가 자주 오셔서 호박 나무는 잎사귀가 다섯개 여섯개씩 내 손사바닥 보다 더 커졌습니다. 꽃 나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무엇인지 몰랐더니, 꽃 나무들도 호박 나무한테 지지 않으려고 잘 자라서, 인제는 다아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나팔꽃은 창집이 동무야.” 하셨더니, 동생은 나팔꽃 나무만 위하고, 비가 오시는데, 흙이 적어졌다고 또 파다가 나팔꽃 나무 밑에 덮어 주었습니다. 어저께는 어머니가 코를 쟁긋 쟁긋 하

시고 호박나무에 거름을 퍼다 주시더니. 오늘은 잎사귀 빛이 검은 초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제는 호박 넝쿨 올릴것을 사와야지.” 하시면서, “올에는 호박이 많이 열릴것 같다.” 하셨습니다. 누구 호박나무에 호박이 제일 많이 열릴가,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새 새 끼

忠南·公州女子師範附屬小學校

5年 李 鍾 姬

오늘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 나가려니까 새 새끼의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리어, 그 곳을 가보니 숙직실 옆에 놓인 새 집에 누가 잡아 넣었는지, 새 새끼 여섯 마리가 들어 있다. 첫 여름 아침이라 맑은 아침이어서 바람이 시원하여 여섯 마리 새가 서로서로 몸을 의지하고 한덩어리가 되어 고개만 여기 저기 바라보면서 헐새 없이 짹짹거린다.

나는 얼핏 딱한 생각이 났다. 어미 새를 기다리는 모양인지 여기 저기 헐새 없이 돌아보며 울기만 한다. 나는 배도 고프겠지 하고 교실에 가서 점심밥을 조금 내

가지고 가서 새 집에 놓아 주었다.

새 새끼는 도무지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서운지 이리 저리 작은 날개를 펼치고 뛰어 헤진다. 나는 더욱 불쌍하게 생각해서, 살살 피해서 농구실 옆 나무 밑에 숨어서 보니까, 도로 한마리 두마리 모여 또 몸을 한데 대고 울기만 하고 있다. 시간이 되어서 운동장에 나가서 동무들과 놀았다. 조회를 마치고 교실에 들어갈 때 바라보니 그대로 모여 있다

밥덩이는 놓은채 그대로 놓여 있다. 한 시간이 끝나고 나와 보아도 그대로 있다. 점심 시간에 와보니 또 그대로 울기만 한다. 한참 동안 보고 있으니 어디선지 큰 새가 짹짹하고 힘차게 우는 소리가 난다. 자세 찾아보니까 수도 옆에 나무에 어미 새겠지, 입에 무엇인지 물고 와서 새 집을 바라보고,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하게 야단하고 있다. 나는 새 집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숙직실 방에 들어가 유리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어미 새가 날아와서 새 집 망에 붙어 앉으니, 새 새끼는 더욱 야단을 치고 어미 새한테도 모여들어 야단벌석을 치고 대든다. 어미 새는 입에 물어 온것을 먹이고 날아갔다. 어미 새가 제 새끼 밥을 갖

다 먹이는것이다. 새 새끼는 또 모여서 한뭉치가 되었다. 나는 어미 새가 얼마나 걱정스러울가 하고 생각 하였다.

그날 공부를 마치고 교실 낭하에서 바라보니, 어미 새는 철새 없이 벌레 같은것을 물고 와서는 먹이고는 가고, 가서는 물고 온다. 내가 준 밥수렁이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조금 기뻐다. 어미 새가 밥을 주어다 먹이니까, 새 새끼는 배는 안고프겠다고 생각하였다. 저녁 때 집에 갈 때에, 목마를가 하여 물통에다 물을 담아서 철망 속에 놓아 주었다. 사람만 가면 새 새끼는 야단법석을 친다. 매일 매일 학교만 가면 노는 시간에는 새 새끼만 보았다. 열흘이 지나서는 새 새끼는 철망 속에서 이리 저리 날아다니고 있다.

날개도 많이 컸다. 나는 그날 공부를 마치고나서 가만 가만 새 집에 가서 보니까, 새 집 속에서는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한다. 난데 없이 어미 새가 짹짹하면서 야단을 친다. 나는 새 집을 내리고 그 문을 열어주었더니, 새 새끼는 한마리 한마리 다 날라갔다. 어미 새는 한마리 한마리 날을 때마다 야단을 치며 따라간다. 어느 새 새끼는 나무에 앉지도 않고 겨우 지붕 위로 날아 앉는다.

어디 새는 기쁜듯이 이리 저리 날아다니고 있다.

나는 한참동안 이리 저리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 틈에 어디 새가 다 데리고 날아갔다.

나는 마음이 상쾌 하였다.

우 리 집

서울 敦岩和光學校

4年 金 洙 熙

나는 우리 집 칠남매 형제의 여섯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다섯살 때에 시골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우리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와서 갖은 고생을 다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을 먹더라도 공부를 하여야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도록 힘썼습니다. 그대 큰 형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곧 취직을 해서 우리들의 학비를 해주셨습니다. 둘째 형은 가정교사를 하면서 중학을 마치고, 더 공부하겠다고 일본으로 건너가,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신문 배달도 하며 인쇄소에서 일을 하여가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셋째 형은 낮

에는 회사에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상업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는 모두 억지로 다니게 되었으나 집안 살림은 말할수 없이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에도 어머니는 다만 우리 형제가 차차 힘 있게 자라나는것만을 재미로 아시고, 갖은 고생을 무릅쓰고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차차 희망 있게 늘어가는 우리 집에, 벼란간 슬픔과 쓸쓸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가까스로 전문학교에 다니던 둘째 형이 학병이라는 이름으로 어골하게 싸움터로 끌려가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않아 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세째 형이 징병으로 진해 일본해군에 끌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으나, 우리들도 어찌나 억울하고 슬픈지, 두 형님을 또 다시 만나볼수가 없을것 같아서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냉수를 떠놓고 몸성히 돌아오기를 비셨습니다.

우리 집에 기둥 같이 믿고 왔던 큰 형님도 징용이 심해져서 영등포 공장에 미리 들어갔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으나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우리 집에는 어머니와 누님과 어린 저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님도 정신대로 끌려갈가 해서 관청에 취직했습니

다. 그때 우리들은 밤이 되면 대문을 일찍 잠그고 한 방에 모여서, 공장에 있는 큰 형님과 진쟁터에 끌려간 형 이야기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공일이 되면 큰 형님이 공장에서 다니러 옵니다. 우리들은 그 날을 매일 같이 기다렸고, 몇달만에 만나는것 같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집을 보시고 저녁이 되면 우리들이 돌아와서 쓸쓸한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이런 슬픔이 쌓여 있는 중에 조선 해방의 날 8월15일이 찾아왔습니다. 우선 큰 형님이 돌아오시고, 얼마 있다가 멀리 중국에서 둘째 형이, 일본 구주에서 셋째 형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만나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형님들이 뜻밖에 돌아와서, 기쁜지 서러운지 나도 모르게 눈물만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인사를 왔습니다.

그 후 큰 형님은 장사를 시작 하시고, 둘째 형은 또 다시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마음 놓고 공부하게 되고, 셋째 형은 회사에 다시 취직하고, 다섯째 형도 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을스름에는 새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집안이 더 늘었습니다. 나와 동생은 매일 저녁에 형님한테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칠남매가 회사로 학교로 모두 나가고 어머니와 새 아주머니만 집에 남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모여 들어와서 밤이 깊도록 재미 있게 이야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냅니다.

우리 집 살구나무

서울 德壽公立國民學校

6年 진 현 숙

우리집 살구나무는 마당 서쪽과 남쪽 새의 구석에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크기가 10 메에타가량이나 됩니다. 동네에 들어서면 누구 집에서든지 보일만큼 큼니다. 이 나무는 20년 전에 아버지께서 1원을 주시고 조그마한 나무를 사다 심으신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나무를 펍 사랑하십니다. 이 살구나무 아래는 닭장이 있고, 그 옆에는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나 개나리 꽃이 피기 전에, 연분홍 꽃이 아름답게 피어 나무 전체가 꽃 덩어리가 됩니다. 그때는 여기 저기서 사구라꽃도 피고 해서, 내가 그 살구꽃을 꺾어서 학교에 가지고

가는 길에서 어딘사내아이가 “아 저거 사구라 꽃이 아니냐?” 하고 웃으며 말하니까, 또 한 아이가 “그래 그래 저거 사구라 꽃이다. 인제 사구라 꽃은 일 없다. 버려라 버려.” 하고 큰 소리로 놀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리 반에 들어가니까, “아이 예뻐 사구라 꽃이지.” 하고 동무들이 말합니다.

나는 살구 꽃을 꺾어 가지고 왔으나 죄다 “그건 사구라다 버려라” 하니까,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에게 “이거 사구라 꽃이 아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핀 살구 꽃이란다.” 하고 성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지는 직원실에 꽂고 그 나머지는 교실에 꽂았습니다.

×

×

꽃이 만발한 저녁에는 평상을 앞 마당에 내놓고 식구가 모여 앉아 살구 꽃 구경을 합니다. 달 밤에 보면 유난히 꽃덩어리가 되어 창경원 야생 구경을 간것 같습니다. 그 살구 꽃이 질 때에는 조금 아깝게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지지 않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꽃이 지고 나면 세파란 잎사귀가 뽕뽕 뽕뽕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차 녹음이 우거지고 여러가

지 새들이 와서 울면 꽃 질 때 아깝던 생각은 잊어버
려지고, 그 밑에서 그네 뛰는 재미는 참으로 말할수 없
이 좋습니다. 그러는 동안 차차 날이 가면 조그마한 콩
알만한 열매가 하나씩 둘씩 떨어지면 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여 소प्질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고 떠들
니다. 그 살구가 익을만해지면 여기 저기서 동네 아이
들이 돌맹이를 던져서 그것을 딸려고 합니다. 어느 때
는 마당의 평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돌을 던져서 그
릇을 깨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빨강게 익으
면 정심이가 허리에 보자기를 차고 올라가서 따니다.
우리는 모두 밑에서 받아 큰 바구니에 붓니다. 그리하
여 차차 따가면 가지가 가늘어서 못 따는데도 있어서.
거기는 아버지께서 길단 대스가지로 그 가는 가지를
흔드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맛이 있게 생긴 새빨강게
익은 살구가 똑똑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따 모은 살
구는 큰 바구니에 셋 넷이 됩니다. 살구를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그릇에 담아 주시면,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
고 동네스집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서든지 고맙다고 안하는 집이 없습니
다. 이렇게 해서 나누고 나면 그 많던 살구가 다 없어

지고 조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가진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시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하고 불평을 하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당에서 딱 과실을 여러 집에 나누는것이 재미다.”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살구나무를 쳐다보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심심 하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아무 재미도 없다가 점점 가을이 가까워지면 잎사귀에 단풍이 듭니다. 아침이면 그네 밑 닭의장에 단풍시냇이 수북 수북 떨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떨어져서 나중에는 가지만 남은 살구나무는 출다는듯이 떨고 있는것 같습니다.

차차 겨울도 깊어 눈이 오면 그 살구나무에 눈꽃이 필니다. 사철 중에 이 겨울에 하얀 솜 같은 눈이 가지 가지에 수북이 쌓여 있는 살구나무의 모양은 제일 아름답습니다. 꽃이 만발했을적이나, 맛이 있게 생긴 열매가 매쳤을적이나, 단풍이 들었을적에 지지 않을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눈이 없어지고 북풍이 세게 불면 가지를 한들한들 흔들면서 추운듯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이 녹고 따뜻한 봄이 되면 또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열리곤 합니다.

정 거 장

慶北·榮州 東部公立國民學校

5年 吳 順 根

벌써부터 아버지와 순이와 나는 남쪽을 바라다보고 바라다보고 하였습니다. 넓은 들 저편에 낮은 산 허리를 끊어서 붉은 진흙이 보이는 사이로 철도는 사라지고 맙니다. 벌써 한시간이나 기다려도 기차는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됩니다.

순이는 내 손을 꼭 쥐며 “공부 잘 하고 잘 있거라 응” 하고 또 말합니다. 나도 “응” 하고 대답하면서 순이를 쳐다보면 순이는 낮을 돌려 하늘과 산을 봅니다. 순이는 어제스밤 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도 몇번 몇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순이를 쳐다보면 순이는 눈물이 맺힌 눈을 돌려 버립니다.

나는 순이가 왜 우는지 압니다. 순이는 서울로 가는 것이 싫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두고 서울로 가는 것이 슬픔입니다. 처음 순이가 서울 회사에 간다고 아버지에게 말 했을 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순이가 “제

가 돈을 벌어서 순근이 학비도 내고, 아버지한테로도 부쳐드리겠어요.” 하고 말했을 때에 아버지는 다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순이는 차에 올라 타고 아버지와 나는 밖에서 있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어두어지는 속에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와 나는 창에서 내다보며 손을 흔드는 순이를 전송하였습니다.

멀티 기차가 사라진 북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곱게 걸려 있고, 그 밑에 소백산 봉오리가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학 자 거 지

서울 三清公立國民學校

6年 吳 俊 明

우리 동네에 언제부터 왔는지 또 어디서 왔는지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두가 모르는 학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입은 옷이야 다 떨어져가는 옷에 발스가락이 되는 구두를 신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위로는 머리가 되는 모자를 쓰고, 밥은 어디든지 있다는듯이 한문 시인지 무

엇인지를 부르면서 이골목 저골목을 제 세상인듯이 다
닙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앉아서 땅베다가 어려운 한
문스글씨를 써 놓고는 혼자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십분
이나 삼십분이나 그대로 가만이 있다가는 갑자기 일어
나 어딘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맨들어 낸지
는 모르나 우리 동네에서는 학자 거지라 불렀습니다.
나는 그 학자 거지와는 친한것보다는 낫이 익어서 한
두마디 말도 할만큼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으로 밥
을 얻으러 오면 밥하고 찬하고 주어서 먹고 가게하였
습니다. 언제인가 어머니가 왜 몸이 튼튼한데 밥을 얻
어먹으러 다니느냐고 물으시니까, “일은 어디서 해요.
쌀포도 없는데, 놈들한테 잡히면 징용이나 가게요.” 하
면서, 빙그레 웃으며 나갑니다. 또 언제인가는 학교에
서 늦도록 공부를 하고 혼자 오려니까, 정희쯤 지난대
서 학자 거지가 무엇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 대여섯이 보고 있습니다. 나도 가까이
가 보니 학자 거지가 무엇이라 말한 끝에 공동 우물을
가리키며 “저 물에 벌레가 왜 생기는지 알아.” 하며 누
구한테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
을 먹을적에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너무 뇌

를 써서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나보군.” 하고 말씀 하시기에, “머리를 너무 쓰면 그렇게 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걱정 말고 얼마든지 머리를 써서 공부하여라.” 하시어서 나는 머리를 긁었더니, 어머니와 동생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는 학자 거지가 제일 생각나는것은 그 강도와 같은 일본이 드디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한 이튿날, 즉 8월16일 연합군이 우리 서울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동생과 같이 수천만의 동포들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중에, 나는 학자 거지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입은 옷은 여태까지 입은 옷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휘두르고 춤을추며, “만세” “만세”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힘 있게 부르면서 동대문 쪽으로 군중과 같이 가는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제일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는 학자 거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선 해방 후 우리는 만세를 부르며 그날 그날을 꿈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 몇달 후에 나는 학자 거지를 통 보지를 못하기에 어머니께 물어보았더니, 해방 이후로는 통 집에도 오지 않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하시며, “아마 자기 고향으

로 찾아 갔는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우리
집에는 일본서 왔다는 사람이 자주 와서는 밥을 얻어
잡니다. 나는 그럴적마다 구멍이 뚫어진 모자를 휘두
르고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군중과 같이 가
던 학자 거지의 생각이 뭉클난답니다.

가난과 싸우며

忠北·清原 琅城公立國民學校

5年 鄭 圭 哲

우리 집에는 땅도 몇마지기 안부치는데다가, 작년에
는 벼가 모두 죽어서 농사를 아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양식을 말말이 팔아 먹게 되어서 여간 곤
난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 가을에 집에
있던 돈을 죄 가지고, 청주읍으로 가서서 쌀을 팔려고
하시니까, 청주 큰 아저씨께서 “무슨 돈이 그리 많아
서, 지금 쌀 값이 한창 비쌀 때에 팔라고 하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쌀 값이 떨어지
거든 파실 작정으로 안 파시고 그냥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쌀 값은 몇 갑절이나 더 올라가서 요

새 와서는 감도 못내게끔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앓기만 하시면 양식 걱정을 하십니다. 장날마다 집에 있는 돈으로 한말씩 두말씩 팔아다 먹다가, 요새 와서는 돈도 다 떨어지고 해서 더욱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요전에는 이웃 집에서 돈을 좀 취해가지고 청주 장날 쌀을 팔아오려 하였었는데, 마침 장날 비가 와서 쌀을 팔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는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할수없이 이웃 집에 가서 옥수수쌀을 조금 꿰다가 타서 죽을 쑤어 먹고서, 아버지는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장으로 가시고, 나하고 동생 규환이 학교는 학교로 갔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배고픈것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여섯 시간 공부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네살 먹은 내 동생이 방에서 혼자 울며 먹은것을 그대로 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험한 죽이 어린 창자에 맞지 않았는가보다”하고 생각을 하니, 동생이 불쌍해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배고픈것도 다 잊어버리고 걸레를 찾아다가 토한것을 훔친뒤에, 동생을 업고 밖으로 나가서 이리 저리 거닐며 달래고 있으려니까, 그 때 마침 장에 가셨든 아버지께서

쌀을 조금 팔아가지고 오셨습니다. 동생을 보시더니,
“애기가 울었고나.” 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먹은것
을 다 토했어요.” 하고 여쭙었더니,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는 어머니가 산에서 뜯어오신 나물베다 쌀을 조금 넣
어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도 어머니
께서 동생이 오늘 토한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는 괜
찮지만 어린것들을 저렇게 배를 고평려서 어찌나, 작년
가을에 쌀을 좀 더 팔았다면 쌀 몇말은 더 얻었을것인
데.” 하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씀도 아니하시지만 마음은 펴 괴로우신 모양이었습
니다.

아버지는 오늘 먼 장에까지 갔다 오시고 어머니는
온종일 산으로 다니시며 나물을 뜯으시고도 이런 죽을
잡숫는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항상 우리들만 생각하
시고 우리들의 걱정만 하시는것입니다. 이런것을 생각
하면 어떻다고 말할수가 없으며 다만 눈물이 날 지경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아버지를 좀 도와드
릴수가 없을가 하고 생각하는데, 마침 학교에서 선생

님에게 요새 산과 들에 있는 여러가지 약초를 캐면 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동네 어른들한테서 요새 들이나 산에 있는 반하뿌리, 시호, 삼주뿌리 같은것을 일삼아서 캐면 상당한 벌이가 된다는 말을 들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때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여쭙고서 “내일부터 나도 동생과 같이 약뿌리를 캐서 팔겠습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너희들만은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야 하지, 약뿌리는 캐서 무엇하니.”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약뿌리를 캐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라고 하였었는데 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주는 부모님의 고마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더욱 공부에 힘써서, 이 큰 은혜를 갚으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옛날부터 훌륭한 분들은 대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고생고생 하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나도 지금 우리 집은 꼭 가난하나, 이 가난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쌀

慶南·昌原 熊川公立國民學校

6年 이 종 회

“종회야, 너 어디 아프냐.” 학교 문을 나올 때 종호가 나에게 물었다. “아니.” 나는 그 따뜻한 동정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만 흔들고 달음질쳐 도망해 왔다. 어찌한 일인지 눈물이 쏟아졌다. 쌀! 나는 며칠을 두고 이 어지러운 문제에 머리가 아프도록 걱정을 했다.

아버지는 물건을 해 가지고 장사하러 촌에 나가시고 집에 돌아오시지 않은지가 한 일주일이 넘는다. 어제 오늘 쌀 한알 구경 하지못한 배는 사정 없이도 내 아래 배를 졸라매는것 같이 힘 하나 없다. 내 배는 백날 굶어도 좋다. 그러나 어린 동생이 불쌍하다. “너 배고프지?” 하고 물을 때 “아니” 하고 머리를 흔들며 “그런데 언니 아버지는 언제 오신다우?”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때까지 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려보았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어린 동생을 위하여 옆 집 형우네 집에 가서 쌀 한 되를 꾸워서 밥을 하여 먹었다. 밥풀 한낱 흘러지 않고 아무 탈 없이 먹는 동생을 볼 때 “쌀이라는것은 고마운 것이다. 이 쌀 속에는 어떤 농부의 힘과 땀이 흘러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농부가 고마웠다.

밥을 먹고난 후 혼자 희미한 등잔스불 밑에서 내일 공부할 예습을 하고 있으니까 잠을 자고 있던 동생이 “어머니” 하고 손을 내흔들었다. 그러나 아무 소리 없이 또 잠을 자고 있다. 나는 동생의 잠자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일곱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각이 났던 것이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렇게 쌀 때문에 고생을 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 동생도 어머니 곁에석 잘 자라났을것이다. 어머니도 없고, 쌀도 없는 슬픈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쌀 값은 한없이 올라가, 우리 같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비참한 생활을 시킨다. 쌀은 우리 살림살이에 빠질수 없는 귀중한것인만큼, 또 구하기에도 힘드는 쌀이다. 쌀을 원망하는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결심하였다. “어디까지 가난과 싸워나가겠다”고.

점심 안 가지고 온 동무

全南·順天 南公立國民學校

5年 金 成 心

우리 학급의 동무들은 71명인데, 그 중에는 밥 먹은 생도와 밥 굶은 생도가 있다.

우리는 하루 세번씩 밥을 먹어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동무들과 놀다 집에 돌아가면 배가 고프는 때도 있다.

그런데 아침밥도 잘 먹지 못하고 점심까지 굶은 동무는 얼마나 배가 고프며, 공부한들 무슨 정신이 있을까?

나도 집에서는 남이 보면 부끄러운 밥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싸주신 점심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네 시간을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가 되면, 집에서는 점심을 안자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그 점심 먹기가 죄송스럽다. 그러나 점심 못 가지고 온 동무들을 볼 때에, 나보다도 더 곤난한 동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내 점심을 보면 같이 먹자고 권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게 굶은 동무는 대개 두부스집에 비자 사러가서 여러번 본 동무가 있다.

우리 식구는 작년 8월 10일까지 북만주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전근으로 안동으로 왔다. 안동에 온 날이 바로 8월 15일 일본 무조건항복의 삐라가 네거리에 붙고, 여기 저기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거기서 짐 오기만 기다렸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하는수 없이 신의주로 와 한달동안을 거기 학교에서 다른 식구들과 같이 지냈다. 화물차를 타고, 칠십리를 걸어 개성으로 왔다. 오면서 기차에서 일본 사람들이 노서아 병정들에게 끌려 내려온것을 볼 때에는 미운 일본이지마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개성서 또 다시 화물차를 타고 서울로 와 다시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왔다. 고향을 찾아 왔으나 아버지는 하실 일이 없으시고 양식도 팔지를 못한다. 어느날 점심 시간에 선생님이 하루 죽을 먹는 사람, 또는 점심을 안 먹는 사람은 손을 들고 말씀하실 때 나는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그 때 왜 선생님이 물어 보셨는고 하고 생각하여 보았다. 나도 손을 들었다. 다른 동무도 한 열명이나 되었다. 그 때 내 마음에는 같이 곤난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밥 굶고 학교에 공부하는것은 참을수 있으나, 선생님께서 책 값 공

책 값을 가져오니라 하실 때에, 집에 가면 돈도 없
고, 그 말하면 집에서 걱정하시는것을 볼 때에는, 한 두
끼 밥 굶는 사람이 있는데, 장래 의무교육이 되면 밥
굶는 생도가 더 많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나 나는 조
금도 이런것에 지지는 않겠다. 만주서도 말할수 없는
고생에 이겨 나왔다. 전쟁에 긴 일본인의 불쌍한 상
태도 잘 보았다. 어찌 우리 조선 나라가 다른 나라에
또 다시 압박을 받아서 쓸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래서는 안된다. 어떠한 고생이 닥쳐와도 이것에 이길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조선이 하루바삐 독립 하여야만 우리도 이런
근난이 없게 될것이다. 동무들아 우리는 조선이 독립
될 때 까지 고된 배를 잘 참고 정신차려 공부하자.

우 리 집

慶北·高靈 安林公立國民學校

1年 徐 英 志

우리 집은 우리 학교 운동장 곁에 있습니다.

한달 전에 돌끼 장터 학교에서 이사왔습니다. 우리집

식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 내 동생 영명, 영기와 강아지 한마리하고 모두 여섯입니다. 들끼서는 망아지까지 일곱이었는데 망아지는 먼 산스골 사람이 들고 갔습니다. 얼마나 컸는가 보고 싶습니다.

검둥이는 나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나는 안 가르쳐 주고 다른 애들만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는 밥을 지으시고 재봉틀 일도 하시고 내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영명, 영기는 무엇이든지 서로 가지려고 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만날 싸우고 읍니다. 영명은 하루 밥을 나보다 두번이나 세번이나 더 먹으려고 합니다. 영기는 울에 네살인데, 창가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집에서 모이세라고 부릅니다. 모이세는 요새도 젓을 먹습니다. 젓 때문에 어머니하고 더러 싸웁니다.

어머니는 내일 큰집과 외가스집에 가서 쌀하고 돈하고 가지고 올려는데, 영명은 가지 말라고 한바탕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천주님과 성모어머님 앞에 인사하고 밤에 잘 때도 인사드리고

잡니다.

아버지는 옳은 일에 목숨을 바칠수 있는 사람이 되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비행학교에 입학한 우리 형

서울 漢洞公立國民學校

3年 최 동 희

“어머니 저는 육군 비행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
다.”고 휘문중학교 3학년 되는 형이 갑자기 말하였습
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가기는 어디를 간단 말
이냐, 애, 그만 두어라.”하고 남 모르게 부뜨셨으나 모
든 수속을 벌써 다 밟아서 꼭 가야만 되겠다고 하며 급
히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성 시내에 계셔도 아버지하고는 의논도
한마디 못하시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예수 믿는 죄로 서대문
경찰서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집안 식구는 누구나 다
근심에 젖어 얼굴 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또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형은 경성을 떠나기전에 아버지 계신 곳에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여쭙고 거기 있는 형사에게도 인사한즉 “네 동부들하고 가니.” 하고 묻기에 형은 “저 혼자 갑니다.”고 대답했더니, “참 너는 좋은 사람이로구나, 이제 너는 근심하지 말고 잘 가서 우리 일본을 위하여 잘 배우고 힘껏 싸워라. 너의 아버지는 팬찮게 되니 안심하여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형의 말을 듣고 집안 식구는 “아, 애가 아버지의 죄를 가볍게 하기위하여 가는것이로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나 누나에게 가겠다는 말을 미리 하면, 물론 못가게 말릴줄 알고, 집안 식구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모든 수속을 밟은 뜻을 알았습니다.

형은 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진지도 잘 안 잡수시고, 얼마나 고생이 되나 하고 근심을 하시며, 한달에 두번씩 오던 편지가 좀 늦으면 더욱 걱정을 하셨습니다.

형을 작별하던 봄 날도 벌써 지나고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유월 어느날 죄도 없이 서대문서에 가 계시던 우리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점점 심해가는 이

때에 형이 동경가 있는것을 생각하면 말할수 없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해도 벌써 지나고 또 봄이 돌아와 나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심해가서 무시무시한 뉴우쓰가 들려 올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했습니다. 미국비행기가 동경 육군 비행학교를 공습했다고 신문에 난것을 보고, 형이 죽은줄 알고 날마다 근심을 하나, 편지도 몇달 전부터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지내는데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 우리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형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징병 갔던 사람들, 징용갔던 사람들, 날마다 날마다 쏟아져 나와도 우리 형은 돌아오지 않고 그날 그날이 지났습니다.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잊을수 없는 12월 11일 학교에서 돌아가본즉 따루에 보지 못하던 짐이 많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가 본즉 형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희승이 형"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형, 둘째형, 누나들, 이웃집 어른들. 모두 모여서 형하고 좋아 하시며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집을 허물라고 해서 형스반은 모두

집을 허물게 되었는데 높이가 50메에터나 되는데 올라가서 허물다가, 기운이 없어서 떨어져서 배를 다쳐 육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그저 낫지가 앓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얼마 안있다. 동대문 부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였는데, 그 이튿날 가엽게도 죽었습니다. 몸에 피가 모자라서 피를 넣어 주려고 하는데, 자는것 같이 곱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형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죽었다면 덜 살겠지만 이렇게 죽은것을 생각하면 더 설교도 분합니다.

장애물 경주

서울 京城師範附屬小學校

5年 李 輝 昭

일학년의 술래잡기도 끝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들의 백메에터 장애물 경주의 차례다.

이 경주는 한사람이 두 다리를 한데 묶어 가지고 뛰는것과 평균대를 걸어가기를 합친, 재미 있는것이다.

이제 우리 뽕 차례가 왔다.

“차려어 명”

다리를 뒤로 차 손을 놓고 뛰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한덩어리가 되어 쏜살 같이 뛰어 나갔으나 한 사람, 또 한 사람. 셋, 넷, 다섯사람, 내 앞으로 지나간다.

“아이구”

나는 분함을 참지 못하였다.

어머니들 자리에서는 수명이 어머니가 “아이 재는 어찌면 저렇게도 잘될까.” 하고 첫째의 용철이를 칭찬하는것이 들린다. 나는 내가 제일 늦다는것이 더 분했고 또 부끄러웠다.

“나는 지금 남에게 뒤 떨어져 있구나! 을치, 온 힘을 다 내자.” 나는 내 마음을 내가 꾸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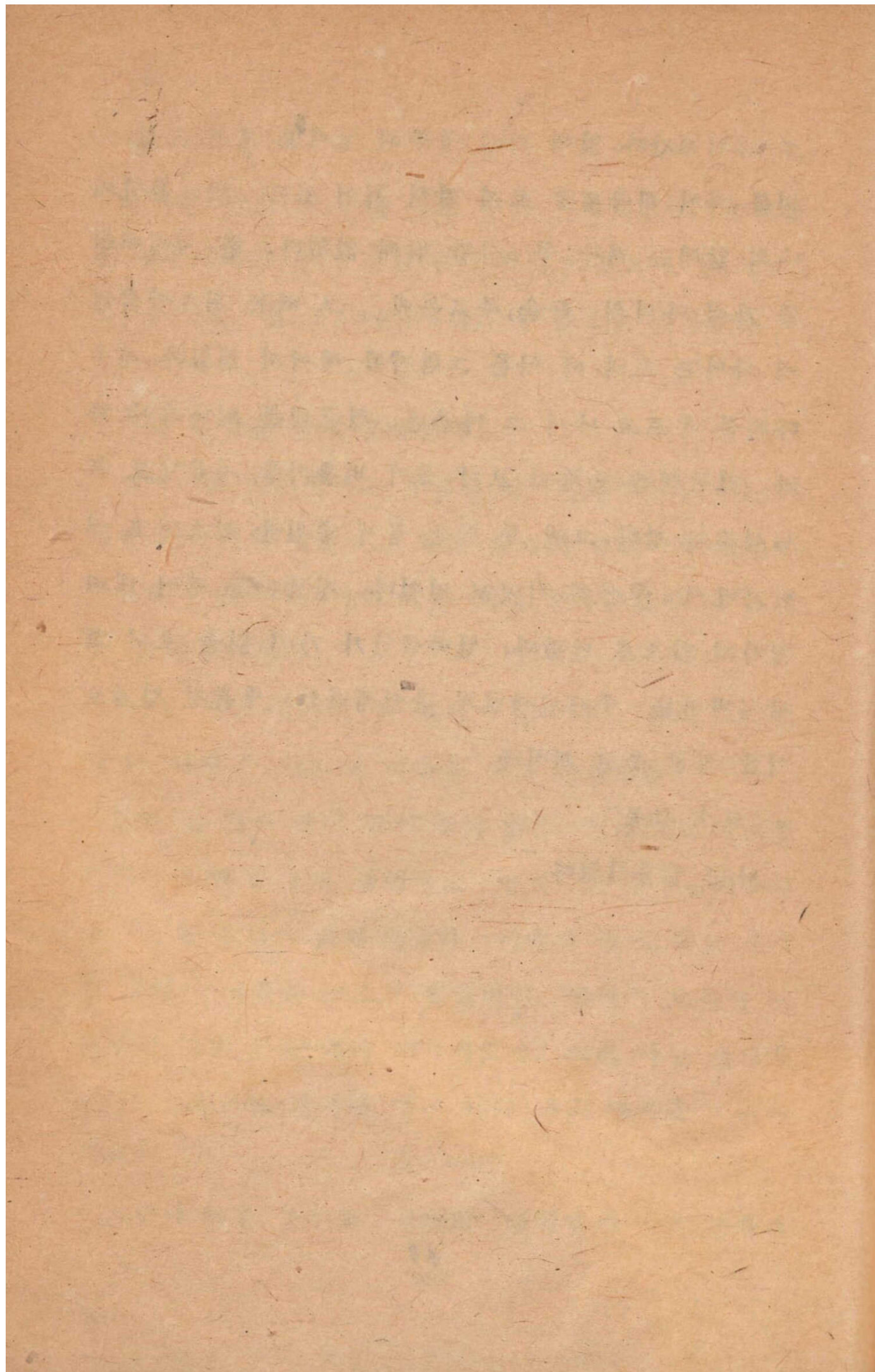
얼마 안 가서 줄에 끈이 놓여 있다. 이것으로 다리를 묶어야지 하고 보니 불행이도 먼저 간 동무들때문에 하나도 끈이 남아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한 순간 어쩔줄을 모르고 있었더니, 옆에서 보시던 선생님이 속히 끈을 하나 내주시었다. 그래 나는 생기가 났다. 그것으로 다리를 묶은 나는 나의 다리를 채찍하였다.

그런데 다른 동무들, 행인지 불행인지 이쪽 저쪽으

로 넘어져간다. 앞에 가던 동무의 실패를 보고 가진 주의를 하여 정충정충 토끼 같이 뛰어 갔다. 어느틈엔지 나의 앞에는 겨우 두 사람 밖에 없었다. 한 오메베터 짚 가서 다리의 끈을 푸르는데, 그 때는 뒤사람과 내 사이는 저녁 때 어른 그림자 짚 떨어져 있었다. 겨우 다리를 푸르고 나니 그 다음은 평균대를 지나가야 한다. 평균대를 올라서 보니 몸이 비틀비틀 지금에도 끈 넘어질 것 같다. 그때 두 팔을 들어 중심을 잡으려고 애써가면서 무사히 이것도 넘었다. 평균대를 뛰어 내려 힘차게 앞으로 달렸다. 얼마쯤인가 가서 옆을 보니 회장석에서는 주사선생님과 윤선생님이 주름진 얼굴로 싱글 싱글 웃고 계시다.

“취소 삼등”

나는 삼등이었다.



作文審査合評記

時日 ★ 1946年 7月 9日 午後 4時

場所 ★ 朝鮮兒童文化協會會議室

參席者

李秉岐 李熙昇 鄭芝溶 李泰俊

皮千得 尹石重 趙豐衍 (無順)

尹石重・이번에 들어온 작품수는 모두 4327편, 참가 학교수로는 316교로 남조선 큼직큼직한 학교에서는 거의 다 응모한 셈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학교에서 초선을 한 모양으로, 어떤 학교에서는 겨우 두편이나 세편을 플라 보낸데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작품이 응모된 것으로 봅니다.

趙豐衍・이 작문 모집은 우리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동요 모집과 함께 매년 한번씩 할 작정입니다. 해방 후 들이 차지 못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 글을 다룰수 있을가 하는것이 문장 그것보다도 크게 기대되는바였습니다. 참으로 늘랄만한 솜씨였습니다.

李秉岐・전체를 통해서 의심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의심된다는 것은 말과 구조가 너무나 조리정연하여 과연 학동의 작품인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웠던 고국"같은것은 학교 선생

이나 지도자가 가필할수 없을만치 솔직한 표현이였고, 또 가필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능난한 사람일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집 꽃밭”은 매우 실감적이요, 어린이의 마음이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궁화”는 18세 소년의 작품이지만 기교가 능숙한점이 의심 안나지 않습니다. 하기는 사실을 사실대로 쓴것도 있습니다. “비행학교에 입학한 우리 형”은 집에 돌아와서 죽었다는것이라든지 사건에 파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가없으나 작품으로서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쌀”은 어린이의 생각으로는 좀 지나쳐서 가필이 의심됩니다.

李泰俊·첫째 느낀것은 지도문제입니다. 내가 전에 보육학교에 있을 때 어린이 그림을 모아본 일이 있는데, 그림은 글과 달라서 선과 색채를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린이의 작품이다, 이것은 대작(代作)이다. 하는것을 알아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글은 그것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로 가필이란것은 도리어 작품에 생채기를 범니다. 그릇된 지도랄가요. 원래 아동의 글이란것은 호흡(呼吸)이 짧고 예민하지만 산발적(散發的)이요 점선적(點線的)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통제하기때문에 작품에 생채기가 나는것입니다. “그리웠던 고국”은 이병기선생 말씀과 같이 의심은 하면서도 그 작품행동에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조선말을 배운 정력이

없을터인데 하는것인데, 어린이는 자도(字道)만 맞추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변동될 때, 자도만 맞추면 그런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이 "그리웠던 고국"은 점철적인것이 특징이며, 솔직하나 글이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상태가 조발되어서 좋은 글을 쓸수 있는 때에, 거기에 맞는 글을 써줘야만 합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어떤것은 내용이 공소하고, 학교에서나 어른들에게 들은풍월이 많습니다.

글에는 관찰(觀察)과 감각(感覺)과 지각(知覺)으로 쓰는것인데 지각으로만 된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皮干得 · 이번에 대체로 어린이가 아니면 쓸수 없는 글이 드물었습니다. 취재가 너무 관념적(觀念的)이며, 작문을 짓는데 뭇을 지을가 하고 애써 지은것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리웠던 고국"과 "범철이의 토끼"를 우수한 작품으로 뽑고 싶습니다.

李熙昇 · 전체적으로 상(想)이 노성(老成)합니다. 아홉살 난 아이가 쓴 "우리집"은 엄청나게 잘 썼습니다. 정말 동심이 그대로 나타난것이 보고싶습니다. 가필 한것이라도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난것이면 좋겠지만.....

李泰俊 · '새 새끼'는 밥알을 주였으나 나중에 가보니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는것 같은 대문은 잘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새끼가 끝에 가서 없어지고 어디새 얘기만 나오는것이 좀 우울합니다.

李熙昇 • “우리집 꽃밭”은 너무 곱지요?

李泰俊 • 네 솔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집 살구나무”도 좋습니
다. “정거장”은 빈틈 없는 작품이어서 상당히 우대하고싶으
나 정말 제가 쓴것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 좀 위험하지 않을
가요.

一 同 • 동감입니다.

李泰俊 • 물론 입상은 시키고싶습니다. 김주희의 “우리집”도 역
작입니다.

鄭芝滂 • 나는 남의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 낭독하는것이 유
쾌한 습관이 되었는데 “그리웠던 고국”을 읽어내려가다가 소
리가 제절로 딱 그쳐졌습니다. 읽을수가 없이 울어지는 까
닭에.....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이 조선의 애화(哀話)를
어린 이문용이의 우리말 글로 들어보기만 한것도 역시 해방의
기쁨이라 할가요. 문용이가 우리 늙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
다. 문용이는 슬픈대로 있을 아이가 아니고 새로 일어서는
조선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문용이가 지적한 비통에
서 짓 녹초가 되어 울줄도 모르고 그날 그날 지나가나, 그러
나 아무 장식이 없이 진정 실황만으로도 이러한 좋은 작문이
되는것이니 당래할 조선 문학은 미리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李秉岐 이 시대의 역사적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趙豐衍 • 이렇게들 추천하시니 1등은 “그리웠던 고국”이 되는가

불너다그려.

一 同. 동감입니다.

李泰俊. 2등엔 “범철어의 토끼”도 뽑는것이 어떻습니까.

李秉岐. “무궁화”도 2등에 넣고싶은데요.

李泰俊. “우리집 꽃밭”도 2등스감은 되는데요.

趙豐衍. 원래 2등 두편으로 작정했으나, 그러면 이상 세편을
2등으로 뽑겠습니다.

皮干得. 김주희의 “우리집”을 3등에 넣으면?

李泰俊. “우리집 살구나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秉岐. “새 새끼”도 3등엔 넣어야겠군요.

一 同. 동감입니다.

李泰俊. 4등은 우리들이 각기 매겨놓은 점수수를 참작하시어
두분(尹. 趙)이 뽑으시지요.

尹石重. 대단히 고맙습니다.

— 끝 —

재미 있고 유익한

兒協 그림 이야기책

제 1 집 **홍부와 놀부** 김용환 그림

제 2 집 **손오공** 김용환 그림

제 3 집 **피터팬** 김의환 그림

제 4 집 **보물섬** 김용환 그림

제 5 집 **어린 예술가** 김의환 그림

세계의 유명한 이야기를 김용환 김의환
형제분이 번갈아 그려내는 걸작 그림책.

한권에 15 원 (전국 각서점
에서 판매함)

發行所 朝鮮兒童文化協會

總販賣所 乙酉文化社

京城府鍾路2丁目82 永保樓三層

振替京城32543番

電話光化門③3492番



“주간소학생”은 우리 조선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주간잡지다. 주간이라 함은 일주일에 한번씩 낸다는 뜻이니, 매주일 월요일마다 책이 나온다.

“주간소학생”을 내는 조선아동문화협회(줄여서 말할 때는 “아협”)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유익한 책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도 이 “주간소학생”은 말하자면 기둥이다. 이 “주간소학생”을 통하여 여러 어린이들의 배움을 돕고, 여러가지 상식을 늘리고, 또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를 듣는 것이다.

과학지식, 동화, 동요, 상식, 새소식, 만화 같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기사가 가득 실려 있어서, 일류 학교 치고 받아 보지 않는 학교가 없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간소학생”을 못 본분이 있거든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아협”으로 주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아협”으로 주문하시기를 바란다. (한호에 임시로 2원씩, 한달치면 8원, 개인으로 주문할 때는 한달치 8원에 송료 1원을 덧붙여 보내시라)

소 학생 모범작문집

1946年9月1日・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서울鐘路永保뽕당・電話光化門3970番

總販賣所・乙酉文化社・臨時定價15圓

